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 사무엘상 20장 12-17절
(Tag:도우시는,돕는,하나님,다윗,요나단,구약,사무엘상,헬퍼)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삼상20:12-17)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서로 도우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서로 도우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이다. 돕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움을 받을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도움을 베푸는 자의 정보도 필요하다.

정작 도움을 받을 자는 별로 원치 않는 도움일 수 있고, 도움을 베푸는 자도 사실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푸신다.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무엇을 도와줄까? 언제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디까지 도와줄까? 누구를 통해 도와줄까?

왜 도움이 필요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답에게 사료를 주듯이 우리를 돕는 분은 아니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돕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거짓말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욕심꾸러기를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헤갈는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당장 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밥을 주었는데, 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빵이 먹고 싶다고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변덕장이, 심지어는 잊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언제 밥을 달라고 했나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10년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골프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시 처음부터?

도와만 주면 나에게 엄청나게 잘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도울 수 있을까?

아들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도와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들 뒤에서 사기꾼이 아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넣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위의 열거된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

적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원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선하고, 계속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나라에서 몇백만원 용자 받으려고 해도 이보다는 더 까다롭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보통 3대에 걸쳐서 이루신다. 왜냐면 우리 인생의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신앙 1세대는 대체적으로 가문의 영적인 받을 일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가정의 죄와 저주를 끊고 복된 받을 일구어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다.

신앙2세대는 그 받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된다. 받이 좋아야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역시 자식들이다. 이때는 주로 가정이 튼실해지고 죄와 우환질고가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가정의 울타리와 가정의 산업의 울타리가 견고하여 잘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또 신앙1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대로 신앙2세대의 영적 DNA를 조절하신다. 아들을 사업가로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맘대로 연예인의 DNA를 심어 버리시지는 않는다. 아들을 음악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운동DNA를 더 많이

활성화 시키시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길을 예비하신다. 만약 기도가 오락가락 한다면, 집이나 길을 짓다가 헐다가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를 45억년 넘게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해서 1세대 2세대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3세대는 대외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 조상들이 기도하며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물론 복은 신앙 1세대에서부터 받는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 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천군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다. 또 남을 도움으로 나도 도움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삶이 공식대로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간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고 사명을 감당하여 복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

사울은 복받기로 예비된 자였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으나, 왕이 된 후에는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되었다. 그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그를 과멸로 몰고 갔다.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매우 용맹하였

고 순전하였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였다. 그는 아버지를 도왔다. 돕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고를 치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예비하셨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용맹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요나단은 불운의 사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영적인 공격을 받았고, 정신적 이상이 왔다. 아버지의 억지와 고집 때문에 전장에서 최고의 공헌을 하였지만 죽을 뻔 하였다.

사울은 다윗과의 중요한 약속들을 어졌기 때문에 아들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실제로도 다윗은 요나단의 매제였다.

요나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다. 그는 왕자였지만 스스로가 왕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가문이 멸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때 그는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고, 다윗을 대적할 수도, 대적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아버지를 돕는 것으로 사명을 삼았다. 그는 그 일을 잘 해 내었고, 가문이 멸문 당하는 것을 막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아냈다.

다윗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성공 뒤에는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요나단보다 다윗을 더 알아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의 헌신을 높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다윗인가 요나단인가? 둘 다 하나님의 사명자이지만,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결코 다윗도 없었다.

반드시 요나단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